

# 평균 관객 수 10분위를 활용한 감독, 제작자, 배우 흥행성과 분석

## Performance Analysis of Directors, Producers, Main Actors in Korean Movie Industry using Deciles Distribution (2004–2017)

김정호, 김재성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

Jung-Ho Kim(kafa1006@khu.ac.kr), Jae Sung Kim(magic@khu.ac.kr)

### 요약

2004년~2017년 8월까지 국내에 개봉된, 다양성 영화를 제외한 순수 국산 상업 극영화 855편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영화의 감독, 제작자, 주연배우, 흥행성적을 조사하여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10분위 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양성을 제외한 극영화 855편을 만드는 데에는, 감독은 509명, 제작자는 696명, 주연배우는 785여 명이 참여하였다. 프로야구 등 스포츠에는 많은 통계적 분석이 활용되고 있다. 승률, 점유율, 타율, 출루율, 도루성공률, 장타율, 삼진, 비율, 볼넷 비율, 홈런 비율 등이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고, 프로선수들의 평가지표로 다루지고, 선수들의 연봉 협상의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스포츠 경기처럼 우연이 많이 존재하는 영화 흥행에서도 영화의 퀄리티를 결정짓는, 창의력이 있어야 하는 인력들 즉 제작자, 감독, 주연배우 등의 평가에 10분위를 활용하여, 이들의 성과를 예측하거나 공헌도를 평가하는 데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본 즉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제작자, 배우, 감독이 선택하는 안목과 경륜을 통한 간접평가만을 담고 있다. 향후 시나리오 내러티브 분석의 정량화, 창작 인력의 성장과 쇠퇴를 볼 수 있는 시계열 분석, 창작 인력 간의 상호작용을 보는 네트워크 분석이 요구된다.

■ 중심어 : | 10분위 | 영화 흥행 | 야구 | 제작자 | 감독 | 배우 |

### Abstract

On the 855 pure Korean commercial fictional movies, excluding diversity films, released in Korea from 2004 to August 2017, I conducted deciles distribution analysis of box office performance of those movies and average box office performance of directors, producers and lead actors who involved in making them. Deciles distribution analysis of average box office performance might be helpful to predict their next box office performance of newly produced Korean movies and to evaluate their contribution to box office performance. In baseball, the various index such as winning rate, on-base percentage, slugging percentage, stolen base percentage, batting average, earned run average is used for predicting and reviewing of professional players. In this study, I evaluate the script's narrative quality by the indirect method of insight and judgment of creative manpower involved in making the movies. For the more productive prediction, direct statistical analysis method on the narrative of the script needs to develop. Time series analysis is required to evaluate the rise and fall of creative manpower and network analysis is also necessary to see the interaction among creative people.

■ keyword : | Deciles Distribution | Baseball | Movie Director | Producer | Lead Actor |

## I. 들어가는 말

대학생들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우리나라 소득 10분위 표를 가지고 평가한다. 소득 10분위는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의 크기순으로 배열하고 이를 백분율로 나눠서, 10개의 구간으로 지정하는 분석법으로, 지니계수가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보여준다면, 소득 10분위 표는 나의 가구소득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방법이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표에서는 1구간이 가장 저소득이고 10구간(분위)이 가장 고소득 구간이다. 10구간은 기준 중위 소득인 5구간의 300%를 초과하는 구간이다[1].

영화의 흥행도 양극화가 심한 분포를 보인다는 점에서 영화 흥행 10분위를 활용한 한국영화계의 건전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같은 흥행 구간이더라도 다양성 영화와 본격 상업영화, 4대 대형 배급사 배급영화와 기타 군소 배급사 배급영화 간에 상영 스크린 수, 상영횟수 등에서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되었다[2].

본 연구에서는 2004년1월1일부터 2017년 8월31일까지 국내에서 상영 완료된 한국영화를 그 흥행성적에 따라서 흥행 10분위를 산출하고, 더 나아가서, 이들 영화를 만든 크리에티브 포스 즉 주요 창작 인력이 참여한 영화의 총관객 수를 참여한 총 작품 수로 나눈 평균 관객 수의 10분위 분석을 통해서, 특정 제작자, 감독, 배우의 우리나라 영화산업에서 흥행 성과가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를 분석하여, 개인의 흥행 중심 역량과 보상, 그리고 앞으로의 수행예측을 평가하는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등 다양한 스포츠에서 통계를 활용하여, 승률, 점유율, 타율, 출루율, 도루성공률, 장타율, 삼진 비율, 볼넷 비율, 홈런 비율 등의 지표를 개발하여 선수의 역량을 평가하고, 그들의 연봉을 산정하고, 선발하는 데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3]. 개인 선수들의 경기가 아닌 단체경기에서도 이러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야구의 투수보다는 그 공헌도를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집단 작업인 영화, 그리고 사회적 맥

락에 큰 영향을 받는 영화 흥행임을 고려하더라도, 우연적인 승패의 결과가 많은 스포츠 경기에서처럼 분석할 수 있고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영화 흥행의 확률적 평가, 정량적 평가에 기반을 둔 연봉 등 보수의 평가가 가능한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영화흥행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스타는 영화수입의 약 15%를 차지한다고 한다[4]. 영화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감독, 제작비, 배급, 원작의 존재 등 후광효과, 개봉 스크린수, 구전효과, 개봉 시기, 경쟁의 존재 등이 언급된다[5]. 본 연구에서는 영화를 만드는 창작 인력 즉, 영화제작이 들어서기 전에 영화의 전반적인 퀄리티를 보장하는 안전판인 제작자, 감독, 주연배우라는 세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시나리오 작가라는 변수가 낱알이 중요성을 가지게 되고 있지만, 많은 영화에서 감독이 직접 대본작성에 관여하고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주요변수로 다루지 않고자 한다. TV 드라마 시장에서처럼 작가의 중요성이 강화된다면, 반드시 포함해야 할 변수라고 본다.

연구 관심사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각 10분위에서 하위 50% 구간의 시작 값과 사례 수는 얼마인가?

둘째, 감독, 제작자, 배우들의 평균 관객 수 10분위 구간의 최댓값과 최솟값은 어떠한가?

셋째, 평균 관객 수 100만 명일 경우는 각각의 집단에서 어느 구간에 위치하는가?

넷째, 각 집단에서 상위 10% 구간의 최댓값과 최솟값 사이의 차이는 어느 집단이 가장 큰지, 즉 어느 집단에 속한 인재의 선택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각각의 집단의 상위 10%에는 어떤 사람들이 속해있는가?

다섯째, 이러한 10분위를 활용한 정량적 분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계열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콘텐츠 내용적 분석인 대본의 내러티브 분석을 정량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성 영화[1]를 제외하고, VOD 용

[1] 영진위가 규정하는 다양성 영화는 영진위 예술영화인정심사에서

에로 영화를 제외한 본격 상업영화만을 바탕으로 하나, 비교분석을 위해서, 다양성 영화를 포함한 경우를 동시에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서, 보통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재무제표나, 자산 및 부채 평가, 기업의 업계 경력, 종업원 수 등의 방법이 왜 영화산업에 적용하기가 어려울지 그 대안으로 창작 인력 개인에 대한 평균 관객 수 10분위의 활용이 가능한지를 타진해보고자 한다. 영화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중심의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점이 일반 상업행위를 하는 기업과의 차이이다.

## II. 한국영화 흥행 10분위 분석

### 1. 연구대상의 범위

본 연구를 위한 기초 통계자료는 영화진흥위원회의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6]. 본 연구에서는 2004년 1월1일부터 개봉되고 2017년 8월31일까지 상영을 마친 한국영화 중에서 상업영화와 다양성 영화를 그 표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영화제에 상영을 위해서 혹은 학생영화제에 상영을 위해서 등급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 사례들이며 영진위 데이터 베이스에서 검색조건은 개봉년도, 국적은 한국, 영화구분은 상업영화, 다양성 영화, 영화유형은 개봉영화로 한정하고, 연도를 넘겨서 상영이 이뤄진 경우는 중복을 제거하여 1편으로 처리하고 기준점은 개봉년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본이 되는 기간에 개봉된 한국영화는 총 2,328여 편이다. 이 중에서 우선 에로영화[2]로 분류되는 영화 542편을 제외한 1,786편이 그 대상이다. 여기에 더해서 1786편의 영화에서 다큐멘터리 236편, 애니메이션 66

편, 공연물 15편 등 총 317편, 그리고 감독판 혹은 확장판을 추가로 개봉한 9편을 제외한 1,458편의 극영화를 최종 선정하였다. 다양성 영화를 포함한 1,458편의 영화들의 평균 관객 수는 859,497명이다. 그리고 중앙값은 90,457명이고, 최빈값은 372명이다. 이 경우, 다양성 포함 흥행 10분위에서 평균 관객 수는 상위 30% 구간에, 중앙값은 하위 50% 구간에, 최빈값도 하위 50% 구간에 속한다.

2004년을 시점으로 설정한 이유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진한 전국단위 흥행집계의 전산화가 본 체도에 들어섰고, 1998년 CJ가 도입한 멀티플렉스 상영 환경이 기존의 단관 극장 체제를 대체하여,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상영, 배급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서, 1960년부터 한국영화를 지배하던 영화제작사, 감독, 촬영감독, 배급사, 극장 등의 카르텔이 무너지고 1980년대 중반 영화제작 자유화 이후에 영화계에 입문한 감독, 프로듀서들이 중견의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던 시기이기도 하다[7].

실제로 영진위가 발행한 <2015년 한국영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영화 관련 기업체 823개 중에서 2000년 이전에 설립된 기업의 수는 90개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9%에 불과하다. 영화 기획 및 제작, 지원 및 유통 관련 회사는 총 800개인데 이 중에서 2000년 이전에 만들어진 회사는 83개로 10.4%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체의 존속기간을 비교하더라도, 조사 시점인 2015년을 기준으로 존속기간 15년 미만인 회사가 600개로 전체 823개의 72.9%이다. 30년 이상의 존속기간을 가진 기업체 수는 10개에 불과하다.

가장 많은 업체가 설립된 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 구간으로 이 기간에 258개의 기업체가 설립되어 전체의 31.3%를 차지하고, 2006년에서 2010년 구간에서는 244개의 기업체가 설립되어 29.6%의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의 90% 가까운 기업이 2000년 이후에 설립되었고, 기업 평균 존속기간이 9.6년이라는 것은 과거의 업체 중에서 현재까지 업을 이어가는 업체는 극히 드물고, 완벽히 새로운 한국영화산업 환경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8].

영화제작 지원 및 유통업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의 영

인정한 예술실험영화, 시장점유율 1% 이내인 영화형식의 작품, 직전 3년내 서울 지역 시장점유율 1%이내 국가의 작품, 영진위의 제작, 배급지원을 받은 작품, 당해연도 1% 미만의 스크린에서 개봉된 한국영화를 의미하는데, 보통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이거나 전국 개봉 스크린 수 100개 미만인 영화를 말한다[2].

[2] 일반적으로 극장 상영작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지방이나 번두리 멀티플렉스의 스크린을 1개 빌려서 1회 상영을 하여 관객수는 1명이거나 소수인 영화들로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을 받은 영화들을 칭한다. 1980년대에 시작된 이러한 관습은 극장 상영작이라는 타이틀을 얻음으로써 가지게 되는 관련 가격산정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2].

화 관련 분야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영자의 경력이 10년에서 25년 사이가 전체의 40%대를 차지한다. 2015년을 기준으로 이들이 영화계에 입문한 시기를 살펴보면, 1990년부터 2005년 사이, 즉 구체제의 막내로 들어오거나, 2000년대 신체제가 성립되는 시기에 한국영화계로 진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9].

영화제작, 지원 및 유통업의 사업체를 직원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9인 미만 사업체가 59.2%를 차지하고, 종업원 수 50인 이상의 기업은 132개로 전체의 12.2%에 불과하다. 영화 기획 및 제작업에 종사하는 인력 4,133명 중에서 종업원 수 1인~4인 기업체에는 590명이 종사하여 전체의 14.28%를 차지하고, 5인~9인 업체에는 652명이 종사, 전체의 15.78%를 차지한다. 종업원 수 10인에서 40인 구간의 업체에는 1,945명이 종사하여 45.06%를 차지한다.

이 분야의 기업체의 매출 규모를 보면, 연간 매출 10억에서 100억 미만이 35.7%로 387개의 업체가 이에 해당하며, 그다음은 1억에서 10억 미만의 매출을 올리는 298개의 기업으로 전체의 27.6%를 차지한다. 1억 미만의 매출실적을 기록하는 업체도 285개로 26.3%를 차지한다. 연간 매출 10억에서 100억 미만의 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2,220명으로 전체의 53.71%를 차지하고, 연간 매출 1억 미만의 업체에는 660명이 종사하여, 15.97%, 1억에서 10억 미만의 매출 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는 851명으로 20.59%를 차지한다.

영화제작, 지원 및 유통업에 있는 기업은 대부분, 비상장 기업(97.8%)이고, 벤처 기업이 아니며(89.6%), 회사법인 형태(70.4%)이고, 단독 사업체(59.3%)로 운영되고, 이 사업체들은 대부분이 창업한 창업주 (52.3%)가 운영하거나, 전문 경영인(32.6%)이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 계승이나 인수를 통한 운영은 3.5%에 불과하다. 영화산업 종사자 중에서 영화콘텐츠 생산에 관여가 큰 직무 종사자들 즉 기획개발, 제작(프로듀서), 연출, 시나리오 작가 직무군에 종사하는 인원은 2,591명으로 전체의 39.7%를 차지한다.

표 1. 설립연도별 사업체 수

설립연도	전체		영화제작, 지원 및 유통업	
	빈도	비중	빈도	비중
2000년 이전	90	10.9	83	10.4
2001~2005년	143	17.4	139	17.4
2006~2010년	244	29.6	240	30
2011~2015년	258	31.3	253	31.6
무응답	88	10.7	85	10.6
합계	823	100	800	100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2015년 한국영화산업실태조사[8]에서 재인용)

표 2. 대표자 관련 분야 경력별 사업체 수

경력 기간[9]	전체		영화제작, 지원 및 유통업	
	빈도	비중	빈도	비중
5년 미만	40	4.9	37	4.6
5~10년 미만	78	9.5	77	9.6
10~15년 미만	118	14.3	114	14.3
15~20년 미만	102	12.4	100	12.5
20~25년 미만	102	12.4	99	12.4
25~30년 미만	26	3.2	26	3.3
30년 이상	35	4.3	33	4.1
무응답	322	39.1	314	39.3
합계	823	100.0	800	100.0
평균(년)	14.8		14.9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2015년 한국영화산업실태조사[9]에서 재인용)

## 2. 한국영화 흥행 10분위 분석

영화 흥행의 특징은 부익부 빈익빈이 심한 구조이다. 그래서 대박이나, 쪽박이나, All or Nothing, 실무율의 구조를 보인다.

또한, 영화 흥행은 흥행성적 상위 20%가 전체 흥행성적의 80%가량을 차지하여, 파레토 분포(Pareto distribution)를 보인다.

200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국내에서 개봉된 한국영화 2,328편 중의 20%인 466편이 전체 한국영화 흥행의 92%를 차지한다. 동일기간 한국영화 평균 관객 수는 547,853명인데, 평균 관객 수 이하, 즉 흥행 순위 하위 50%에 해당하는 영화 편수는 1,511편이다. 전체영화 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85%이다.

이들 중에는 극장 개봉작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1개의 스크린에서 1회 상영을 하고는 VOD시장으로 직행하는 VOD용 에로영화들이 있다. 이 영화들은 한국영화 통계 해석을 교란하는, 따라서 주의를 필요로 하는 Noise<sup>[3]</sup>이다. 에로 영화를 한국영화제작 편수에 포함한다면, 매년 제작되는 한국영화의 편수를 늘리게 되어, 영화업계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착시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반면에 흥행패턴에서는 흥행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한국영화 평균 관객 수를 많이 떨어뜨려 한국영화업계의 양극화와 하향 평준화라는 부정적 모습을 심화시킬 것이다. 이들 에로영화의 편수는 543편이고 모두 하위 50% 흥행 구간에 속한다. 이 에로영화에서 동원한 최대 관객 수는 9,814명이다.

본 분석에서는 2,328편의 영화 중 VOD용 에로영화 542편을 제외한 1,786편의 한국 상업영화와 다양성 영화를 우선 선정하고 이중 다큐멘터리는 236편, 애니메이션 66편, 공연물 15편으로 배우가 필요 없는 장르의 영화는 317편으로 순수 극영화만은 1,458편이다. 표본의 평균 관객 수는 859,497명으로 VOD용 에로영화를 포함할 때의 평균 관객 수 547,853명보다 311,644명이 많다.

표본에서 1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한국영화 편수는 345편이고, 1천만 관객 이상을 동원한 영화는 13편으로 흥행 순위 상위 1% 이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렇게 1천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들은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어서 한국영화가 잘 나가고 있다는 착각을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한다. 이들 1천만 이상의 영화들이 한국영화 전체의 평균 관객 수를 상향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그래서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outlier<sup>[4]</sup>로서 취급하여야 한다. 1천만 관객영화

13편을 제외한 나머지 영화들의 평균 관객 수는 751,289명으로, 포함하였을 때의 평균 관객 수 859,497명보다 10만8천208명이 적다.

흥행 10분위의 각 구간 내에서도 흥행성적은 극과 극을 달린다. 상위 30% 구간의 경우 평균 관객 수는 922,058명인데, 구간 내 관객 수 범위는 최대 1백20만4천여 명에서 최저 63만9천여 명이다. 하위 50% 구간의 경우는 평균 관객 수가 1만395명인데, 그 구간의 관객 수 범위는 8만9천526명에서 1명까지이다.

다양성 영화 603편 중에서 하위 50% 구간에 있는 영화의 편수는 559편으로 이 구간 전체의 76.68%가 다양성 영화이다. 이 구간의 다양성 영화 편당 평균 관객 수는 7,004명이고 최대 89,526명, 최소 2명이다.

다양성 영화는 상위 50% 구간에 24편, 상위 40% 구간에 10편, 상위 30% 구간에 6편, 상위 20% 구간에 3편, 상위 10% 구간에 1편이 있다.

반면에 상업영화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구간은 상위 10% 구간으로 99.31%인 144편이 포진해 있다.

관객 흥행이 10만여 명 정도이면 흥행 10분위 상위 50% 구간에 속하고, 1백만여 명 이상을 동원한 영화는 상위 30% 구간의 상층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구간은 또한 전체 평균 관객 수보다 상위에 위치할 수 있는 구간이다.

한국영화의 배급은 CJ, 롯데, 쇼박스, NEW의 4대 배급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4대 배급사와 시네마서비스, 싸이더스 등을 제외한 배급사에 의해서 배급되는 영화는 표본 기간 중의 작품 수 1,458편 중에서 750편으로 전체의 51.44%이다. 이들이 거둬들인 관객 수는 1억 1천6백97만여 명으로 전체의 9.33%에 불과하다. 기타 배급이 상위 10%에는 10편의 영화를 위치시키는데 이들이 동원한 관객 수는 3천3백97만여 명이었지만, 하위 50%에서는 613편의 영화가 5백3십6만6천여 명의 관객 수를 기록했다.

[3]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정보를 뜻하는 signal 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잘못된 정보를 잡음이라고 본다. 의미있는 정보인 signal 과 잡음을 적절히 분리하지 못하면 잘못된 통계적 결론을 가져오게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많은 편수의 영화들이 1개의 스크린에서 1회 상영에 1명 혹은 0명의 관객을 동원하는데, 이들 편수들만 보면 한국영화의 제작이 활발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들이 동원한 관객수를 감안하면, 한국영화 전체의 평균관객수를 떨어뜨려서 상반된 결론을 제공한다. 즉 편수로는 활황기인데 수익의 측면 즉 내일의 측면에서 본다면 평균관객수가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4] 이상점,극단치, 통계분석에서 결과를 왜곡시키거나 자료분석의 적정성에 저해가 되는 변수값. 일반적으로 분포의 집중경향치의 값을

왜곡시킨다. 1천만 이상 관객동원 영화는 우리영화흥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며 이들이 전체 평균값을 높여놓는다.

표 3. 2004년~2017년 8월 현재 국내 개봉 한국영화 흥행 10분위

흥행 10분위	평균 관객 수	구간 내 관객 수 범위	
		최대	최소
상위 1%(14편)	12,659,537	17,613,682	9,699,092
10%(145편)	5,276,537.08	17,613,682	2,362,906
20%(146편)	1,719,040.71	2,354,422	1,206,101
30%	922,058.99	1,204,666	639,596
40%	463,295.47	634,953	308,180
50%	184,001.40	306,119	91,387
하위 50%(729편)	10,895.56	89,526	1

다양성 영화이면서 기타배급사에서 배급한 영화는 총 525편으로 전체의 36%이다. 다양성 영화이면서 4대 대형 배급사 이외의 기타배급사에서 배급한 영화들은 하위 50% 구간에서 503편, 상위 50% 구간에서 14편, 상위 40% 구간에서 4편, 상위 30% 구간에서 2편, 상위 20% 구간에서 1편, 상위 10% 구간에서 1편이 위치한다.

표 4. 한국영화 흥행 10분위 내에서 기타배급사 영화의 현황

흥행 10분위	작품 수	평균 관객 수	구간내 범위	
			최대	최소
상위 10%	10	3,399,350	7,487,545	2,420,729
20%	18	1,806,596.67	2,346,446	1,212,270
30%	24	922,118.13	1,203,146	654,587
40%	29	442,804.64	629,452	316,780
50%	56	180,797.29	306,119	91387
하위 50%	613	8754.81	89,526	1

한국영화 흥행 10분위에서 전국스크린 수 정보가 없는 348편을 제외한 1,110편의 영화들의 흥행 10분위별 스크린수를 산출해 보았다.

표 5. 흥행 10분위별 개봉 스크린 수 분포

흥행 10분위	평균 스크린 수	구간 내 스크린 수범위		다양성 X 기타 배급	
		최대	최소	평균 스크린 수	편수
상위 10%	819.38	2,027	76	76	1
20%	565.43	1,176	242	326	1
30%	495.46	915	190	259	2
40%	417.59	970	192	286.33	4
50%	284.03	532	3	249.9	14
하위 50%	43.36	397	1	25.13	503

흥행 10분위 구간별 개봉 스크린수와 상영일수에 차이가 크게 존재하며, 구간 내에서도 상업영화, 다양성 영화, 4대 배급사 등 대형 배급사와 기타 군소 배급사 간에도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다양성 영화 포함할 경우의 통계적 문제

다양성 영화를 통계에 포함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처럼 상업적으로 흥행을 거둔 많은 영화가 다양성 영화로 구분되어서 배급되었다. 이들 영화는 상업영화로 분류되는 영화들보다 더한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경우도 있다. 둘째, 현재 상업 영화권에서 뛰어난 흥행실적을 내는 감독들도 처음 시작은 다양성 영화를 통해서 데뷔하거나 실력을 쌓고 상업 영화권으로 픽업되어 성공을 거둔 경우가 많다. 배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배우 윤계상의 경우, 가수 출신이라서 지명도가 있음에도 여러 편의 다양성 영화에 주연으로 활동하였고, 최근의 <범죄 도시>에서 본격 상업영화에 주연으로 등장하였다. 셋째, 유명 배우나 감독들도 상업적 성취만을 위한 작품이 아니라 개인적인 작품활동을 위해서도 다양성 영화제작에 참여한다. 다양성 영화가 우리 영화계를 지탱하는 한 축이며, 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가 있고 off - Broadway가 있듯이 상업 영화권에서 시도할 수 없는 예술적 성취나 표현을 담아내고, 새로운 영화인력을 훈련하고 배출시키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문제는 이들 다양성 영화들의 흥행성적이 아주 좋지 않아서, VOD용 예로영화처럼 영화 흥행 순위 하위권을 대거 점유하고 있어서, 10분위 분석의 하위 50%의 대부분을 이들이 차지하고, 한국영화라는 분모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 놓아서, 차이를 드러내기보다는 감추게 하여 세밀한 분석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다양성 영화의 일부들은 VOD용 예로영화지만 다양성 영화라는 외피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이들 다양성 영화들도 통계적인 작업에서는 Noise 일 소지가 다분하다.

더욱 정교한 10분위 분석을 위해서 다양성 영화를 배제한 작업을 진행하고, 다양성 영화를 포함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10분위 분석을 동시에 제시하여 판단

에 근거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표 6. 개봉한국영화전체, 다양성포함/제외 극영화의 평균관객수, 중앙값, 최빈값 변화

조건	개봉한국영화전체	극영화 중 다양성 포함여부	
		포함	제외
편수	2,328	1,459	855
평균	547,853	859,497	1,436,453
중앙값	4,555	90,457	634,953
최빈값	1	372	229,610

앞의 분석에서 활용한 1,458편의 극영화 중에서 다양성 영화 603편을 제외한 855편의 상업 극영화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경우, 평균 관객 수는 1백43만6천453명이고, 상위 흥행성적에 덜 영향을 받는, 855편의 영화의 흥행성적의 중앙값은 63만4천953명, 최빈값은 22만9천6백10명이다. 855편의 평균값은 다양성 제외 10분위에서 상위 50% 구간에 속하고, 중앙값은 하위 50% 구간에, 최빈값도 하위 50% 구간에 속한다.

#### 4. 다양성 제외 흥행 10분위 분석

다양성을 제외한 관객 10분위에서는 포함한 10분위에서 보다 상위 10% 구간과 20% 구간의 평균 관객 수에 있어서 각각 1백만여 명의 상승효과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각각의 10분위 구간에서 상승을 가져왔다. 이는 각각의 구간에서 낮은 관객 수를 기록하던 다양성 영화가 배제되어 분모가 줄어든 효과이다. 하위 50% 구간을 비교하면, 구간 내 최댓값이 다양성 영화를 제외한 경우는 63만2천299명인데, 포함한 경우는 3만9천526명이다. 다양성 영화 603편 중에서 하위 50% 구간에 있는 영화의 편수는 559편으로 이 구간 전체의 76.68%가 다양성 영화이다. 다양성 영화를 배제하는 경우, 하위 50%에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다양성을 제외한 관객 10분위에서의 평균 스크린 수도 포함한 경우에서보다 100개 내외로 높게 나오고 있다. 하위 50%의 경우, 다양성을 제외한 경우는 253개의 평균 스크린수를 가지는데, 포함할 경우는 43.36개로 200개의 스크린수 차이를 보인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격차가 커졌다.

표 7. 다양성 제외 흥행 10분위

흥행 10분위	평균 관객 수	구간 내 관객 수 범위	
		최대	최소
상위 1%(8편)	13,636,825	17,613,682	12,319,542
10%(85편)	6,976,350.09	17,613,682	3,650,000
20%(86편)	2,661,400.97	3,586,523	2,108,273
30%(85편)	1,723,457.38	2,104,716	1,407,681
40%(86편)	1,175,768.69	1,406,199	989,573
50%(86편)	807,690.48	987,420	634,953
하위 50%(427편)	208,959.65	632,299	1

표 8. 다양성 제외 10분위 스크린 수

흥행 10분위	평균스크린 수	구간 내 스크린 수	
		최대	최소
상위 10%	915.30	2,027	405
20%	674.79	1,278	297
30%	556.33	1,054	262
40%	563.33	1,154	190
50%	467.38	860	257
하위 50%	253.61	970	1

### III. 감독, 제작자, 주연배우 평균 관객 수 10분위 분석

#### 1. 감독 평균 관객 수 10분위 분석

200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표본 기간에 1,458편의 극영화를 851명의 영화감독이 만들었다. 평균 감독 1인당 13년여 동안에 1.71편을 연출한 셈이다. 공동연출, 유니버스 영화인 경우는 별도의 1명의 감독으로 취급하였다. 이들 감독 중 64.39%인 548명은 작품 수가 각각 1편에 불과하고 160명은 작품 수가 2편이다.

흥행 순위 상위 10% 구간의 145편의 영화를 만든 감독은 96명으로 감독당 평균 1.51편이다. 이들 중 14명은 전체작품 수가 1편이다. 즉 표본 기간에 감독 데뷔하여 첫 작품에서 흥행 상위 10%에 들어간 것이다. 상위 1%인 12명 중에는 2명이 데뷔작이다. 상위 10% 구간에 해당하는 감독 중 표본 기간에 5편 이상 만든 감독 수는 17명이다.

상위 1%에 해당하는 감독들 12명의 평균연출작품 수가 3.92편, 그리고 상위 10% 구간에 속하는 감독들의

평균 작품 수가 3.18편으로 연출경력이 높을수록 흥행 상위에 오를 수 있는 속련도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영화 흥행 10분위의 각 구간에 해당하는 감독들의 총 연출작이 동원한 평균 관객 수를 산출하여 보았고, 감독의 역량을 흥행의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851명의 감독에 대해서, 감독이 연출한 작품 수와 그 영화들이 동원한 관객 수를 가지고 감독의 작품당 평균 관객 수를 구하고, 다시 이 데이터를 10분위로 구분 지었고 각 구간에 감독들을 위치시켰다.

흔히 영화 흥행 기준으로 삼는 1백만 관객을 평균적으로 동원한 감독들은 평균 관객 수 상위 20% 구간 이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평균 관객 수 10만여 명 이상을 동원하는 감독은 11편을 연출하여 평균 10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한 김기덕 감독부터 390여 명이다. 이들은 상위 50% 구간에 속한다. 평균 관객 수 10분위 구간별 감독들의 총연출작품 수 평균을 보면, 상위 10%에서 2.75편, 하위 50%에서 1.38편으로 영화를 많이 만들수록 흥행 상위에 속할 가능성이 높거나, 흥행 상위구간에 속함으로써 연출 기회가 많아지는 추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위 1%의 경우는 8명 중 3명이 데뷔작으로 흥행에 커다란 성공을 거두어서 평균 작품 수에서도 2.63편으로 상위 10% 구간의 2.75편보다 작다. 8명 중의 3명은 37.5%이므로, 신인 감독을 과감하게 기용하는 위험을 가지는 것도 타당하다. 평균 관객 상위 10% 구간의 감독 85명이 만든 영화의 편수는 234편이다. 그런데 85명 중 28.25%인 24명이 데뷔작이거나, 지난 13년간 작품활동이 없던 감독들이다. 작품 수가 2편인 감독도 21명이다. 구간별 작품 수가 2편인 감독 수를 보면 상위 20% 구간이 28명, 상위 30% 구간이 23명, 상위 40% 구간이 25명, 상위 40% 구간이 13명, 하위 50% 구간이 50명이다. 하위 50% 구간에 작품 수 1편인 경우가 79.81%를 차지하는 340명이다. 상위 50% 구간도 74.11%를 차지한다.

평균 관객 수 상위 10여 명의 대표 감독들이 만든 작품 수 평균은 2.4편이고, 이들 감독은 1969년에서 72년 사이에 태어나서 2007년 전후로, 나이로는 36세 전후로 데뷔하였다. 허정과 장재현은 1981년생이고 김학순은 1954년생이다. 양우석은 44세에 데뷔하여 데뷔작품으

로 평균 관객 수 1위로 들어섰다. 상위 10여 명에 데뷔작으로 들어선 감독들은 양우석, 이일형, 허정, 장재현이다.

표 9. 감독 평균 관객 수 10분위 분포

평균 관객 10분위	감독 평균 관객 평균	감독 평균 관객 수 범위	평균 작품 수	1편 연출 감독 수
상위1% (8명)	9,014,309.97	1천1백56만5천여 명~6백52만5천여 명	2.63	3
상위 10% (85명)	3,625,977.23	1천1백56만5천여 명~1백76만6천여 명	2.75	24
상위 20%	1,258,150.56	1백76만4천여 명~92만7천5백여 명	2.27	30
상위 30%	652,853.23	92만4천여 명~47만여 명	1.88	41
상위 40%	333,123.56	46만7천여 명~19만9천여 명	1.66	50
상위 50%	116,142.03	19만7천7백여 명~5만여 명	1.67	63
하위 50% (426명)	6476.78	4만8천여 명~1명	1.38	340

평균 관객 수 상위 10여 명의 감독의 평균적인 모습은 1971년도에 태어나서 36.11세가 되던 2007년에 데뷔하여 평균 2.4편의 영화를 만든 감독들이다. 이들의 작품당 평균 관객 수는 7백5십만여 명이다.

작품 수를 기준으로 작품 수 상위 10명의 감독을 비교할 때, 가장 많은 작품을 만든 감독은 16편을 만든 홍상수 감독이고 그다음은 각각 10편을 만든 이준익, 김기덕이다. 그런데 작품 수는 감독이 얼마나 꾸준하게 영화를 만들어가는가를 보여주는 하나, 그것이 곧 그 감독의 흥행역량을 보여주는 척도는 안된다. 이준익 감독의 영화가 동원한 관객 수 평균은 3백27만1천085.8명이지만, 홍상수 감독의 경우는 6만8천186.75명, 김기덕 감독은 11만18.8명이다. 8편을 만든 전수일 감독의 평균 관객 수는 2천276명이다. 작품 수 10위 내에 든 나머지 감독 중 장진, 류승완, 강우석, 정용기의 평균 관객 수는 1백만여 명에서 3백6십여만 명으로 감독 평균 관객 수 10분위에서 상위 20% 이상에 속한다. 그러나 나머지 5명은 상위 50% 구간과 하위 50% 구간에 속한다. 작품 수 상위 10명이 평균 작품 수는 9.4편이고 출생연도의



범위는 1959년부터 1972년 사이이며, 평균 출생연도는 1964년도로 34.3세가 되던 1998년에 데뷔하여 평균 관객 수는 1백4십2만여 명이다.

감독이 거뒀던 총관객 수 상위 10명의 감독은 최동훈, 류승완, 이준익, 강우석, 윤제균, 김한민, 봉준호, 이석훈, 강형철, 추창민 순이다. 이들의 평균적인 모습은 1968년에 태어나서 32.7세가 되던 2001년에 데뷔하여 작품당 평균 5백6십3만여 명의 관객 수를 기록한다. 이들의 출생연도 범위는 1959년부터 1974년 사이이다.

작품 수가 많다는 것도 한국영화계에서 꾸준히 영화를 만들어 왔다는 증거이므로, 꾸준히 작품을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감독의 능력이라 하겠지만, 예술적 성과가 아닌 흥행의 관점에서 본다면, 감독의 대중동원 능력을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영화계에 오래 있으면, 더 많은 작품을 만들 수 있으므로 현재보다는 과거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작품 수를 반영하지 않는 총관객 수 기준은 정태적이며 과거에 방점을 두고 있어서 신인 감독들이 흥행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한다. 평균 관객 수의 경우는 개별 감독들의 시계 열적 상승 혹은 하강을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작품 수와 관객 수를 반영하여 감독들의 평균적인 관객동원능력을 보여주며, 데뷔감독과 최근의 흥행 경향을 반영하고 있어서 감독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할 수 있다.

표 10. 평균 관객 수 상위 대표 감독들의 모습

감독 이름	작품 수	평균 관객 수(명)	출생연도	데뷔 연도
양우석	1	11,372,451	1969	2013
이일형	1	9,699,092	1980	2015
윤제균	3	9,483,264.333	1969	2001
봉준호	3	8,316,036	1969	2000
최동훈	5	8,160,618.6	1972	2004
김학순	1	6,043,458	1954	2004
허정	1	5,602,543	1981	2013
김한민	5	5,596,353	1969	2007
김용화	3	5,478,760.667	1971	2003
장재현	1	5,440,945	1981	2015
평균	2.4	7,519,352.16	1971.56	2007.5

## 2. 다양성 제외 감독 평균 관객 수 10분위

다양성 영화를 제외한 한국 극영화 855편을 연출한 감독 수는 509명이다. 1명당 1.68편인 셈이다. 다양성을

포함한 경우의 1.71편과 큰 차이가 없다. 342명이 다양성 영화를 연출한 감독이다.

평균 관객 수 10분위에서 상위 40% 이상의 구간에 속한 감독들이 평균 관객 수 1백만 명을 동원하는 감독들이다. 감독들의 평균 작품 수에서는 상위 1%를 제외하고는 위에서부터 점차 작아지는 구조가 되고 상위 50% 구간에서 상업극영화감독 1인당 작품 수 1.69편과 가까워진다. 하위 50%의 경우는 평균 작품 수보다 밑돈다. 하위 50% 구간에도 4편을 만든 감독이 8명, 6편을 만든 감독이 6명이나 된다. 2편은 68명, 3편은 12명이고, 214명이 각각 1개의 작품을 만들었다.

상위 1%의 감독 중 연상호 감독의 경우, 다양성 영화로 분류되는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를 3편을 만들고 상업 영화권으로 픽업되어 <부산행>(2016)을 연출하여 천만 관객을 동원하였다. 그래서 상업 영화권만을 보았을 때는 <부산행>이 데뷔작이나, 다양성 영화를 고려하면 4편째의 작품이다. 이전에 만든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2011)은 관객 수 1만8천7백여 명, <사이비>(2013)는 2만2천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였고, <서울역>(2016)의 경우, <부산행> 개봉 시기에 같이 개봉되어서 14만6천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였다. 이들 애니메이션까지 포함한 평균 관객 수는 2백93만8천여 명이다. 이 경우에도 여전히 상위 10%에 속한다. 이렇게 다양성을 포함하는가와 그렇지 않은가에는 결과의 해석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표 11. 다양성 제외 감독 평균 관객 수 10분위 분포

평균 관객 10분위	평균 관객 평균	평균 관객 수 범위	평균 작품 수	1편 연출 감독 수
상위 1% (5명)	10,087,184.27	1천156만5천여 명~8백31만6천여 명	1.8	3
상위 10% (50명)	4,954,487.41	1천156만5천여명~272만 5천9백여 명	2.74	17
상위 20% (51명)	2,062,167.44	266만4천6백여 명~161만3천7백여 명	2.43	18
상위 30% (51명)	1,317,658.7	161만1천여 명~111만여 명	2.04	21
상위 40% (51명)	926,209.73	110만8천7백여 명 75만7천4백여 명	1.9	27
상위 50% (51명)	629,687.82	75만6천7백여 명~50만2백여 명	1.67	27
하위 50% (255명)	156,301.58	49만7천8백여 명~1명	1.21	214

참고로 연상호 감독이 <부산행> 이후로 연출하여 2018년 1월 31일에 개봉한 <엽력>(2017)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99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데에 그쳤다. <엽력>까지를 포함한 5편의 평균 관객 수는 2백54만8천5백여 명이다. 이 경우 감독은 상위 20% 구간에 속하게 된다. <부산행>과 <엽력>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평균 관객 수 6백27만8천4백여 명으로 상위 10% 구간에 속한다.

<부산행>의 결과가 일시적이고 우연의 산물이며, 거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1천만 관객을 동원하는 영화는 흔히 볼 수 있는 기록이 아니므로 <엽력>의 관객 수 하락만을 보고서 비판적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연상호의 사례에서 보듯이, 연출작이 많을수록, 즉 사례가 많을수록 감독의 관객동원력에 대해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사례 수가 작은 경우, 즉 연출작이 1편인 경우에는 정성적인 요소에 대한 의견을 더 할 수밖에 없다.

양우석 감독도 <변호인>(2013), 1편으로 상위 1%에 올랐으나, 2017년 12월 14일에 개봉한 <강철비>(2017)가 4백45만2천7백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여, 평균 관객 수로 7백91만3천8백여 명으로 업데이트된다. 그렇더라도, 상위 1%에는 아니지만, 여전히 상위 10%의 감독 군에는 들어간다. <변호인>의 성공에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시대적 분위기와 이 영화의 프로듀서인 최재원의 역량과 감독의 역량이 더해진 결과라면, <강철비>를 비롯해 작품을 더 많이 해나갈수록 일회성인 아닌, 그리고 감독 본인의 역량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본다. <강철비>의 제작을 담당할 선영의 경우, 영화 4편의 온라인 마케팅을 담당할 전력이 있고, 영화계에는 2001년부터 활동하였으나, 제작자로서 이름을 올린 것은 <강철비>가 첫 작품이다. 이일형 감독의 경우, 2008년부터 <군도>(2013), <비스티 보이즈>(2008)의 조감독과 각색을 경험하고, 2011년 <마이웨이>(2011) 연출팀을 거친 뒤에, <검사의죄>(2015)으로 각본, 감독하여 데뷔한 경우이다.

각 구간에서 작품 수 1편인 경우, 즉 데뷔작인 경우의 비율을 보면, 상위 1% 구간에서는 60%가 데뷔작이며, 상위 10%의 경우 34%로 최저이고, 가장 비율이 높은

구간은 하위 50%로 83.92%이다. 각 구간에 평균적으로 40%가 신인 감독인 격이어서, 기성 감독에만 안주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표 12. 다양성 제외 평균 관객 수 10분위 감독들

평균 관객 10분위	감독 이름
상위 10% (50명)	연상호, 양우석, 이일형, 윤제균, 봉준호, 최동훈, 김한민, 장철수, 강형철, 김학순, 허정, 김병우, 조의석, 김병서, 김용화, 장재현, 심형래, 우창민, 박광현, 강재규, 김주호, 황동혁, 나홍진, 이석훈, 한재덕, 이계벽, 장훈, 류승완, 김지훈, 조성희, 김성훈c, 이환경, 김유진, 김성훈 1971, 강우석, 조정래, 김지운, 정지영, 이승준 b, 이준익, 이재한, 김석윤, 윤종빈, 우민 호, 강대규, 이병현, 김동원 c, 나현, 김성수 1961, 박찬욱
상위 20% (51명)	권수경, 박진표, 유하, 이정범, 박정우, 손영성, 장준환, 조범구, 이연우, 정태원, 김정훈 b, 김대우, 이현, 임순례, 백운학, 이용주, 김민석, 박훈정, 광정택, 김태곤, 김홍선, 정근섭, 윤태윤, 임찬상, 백종열, 조진규, 이계규, 김영탁, 허진호, 박대민, 한동욱, 정병길, 민규동, 이정철, 정용기, 권혁재, 장문일, 안권태, 이시명, 송해성, 국동성, 황인호, 문현성, 원신연, 전계수, 정윤철, 신태라, 정기훈, 창, 이상기
상위 30% (51명)	김상찬 1970, 김현수, 김현석, 김봉주, 김정우, 신정원, 김대승, 조근현, 윤인호, 최석원, 조동오, 한준희, 심성보, 방은진, 손재곤, 김미정, 변혁, 전윤수, 김용균, 변성현, 박희곤, 공수창, 김종진, 김성욱, 최호, 김형주, 박광준, 김휘, 변영주, 권중관, 이규만, 노덕, 민준기, 김광식, 이상훈, 이명세, 이수연, 김형준 b, 오상훈, 정조선, 임상수, 천세환, 김호준, 임태형, 박영훈, 장우정, 조진호, 윤종찬, 라희찬, 장진, 김태윤, 임상윤
상위 40% (51명)	김태경, 이인규, 김상진 1967, 이재용, 양윤호, 장규성, 조진모, 박홍수, 이정호 b, 오달균, 박은형, 김진영, 송일근, 박성규, 유위강, 조명남, 윤제균, 이호재, 정윤수, 손희창, 안상훈, 허인무, 우선호, 박현진, 김용한, 박신우, 심승보, 황병국, 박현수, 박철희, 장현수, 박인제, 광재용, 김지영, 손용호, 김태용, 김태균, 홍지영, 이영은, 윤종석, 임찬익, 김광태, 안병기, 부지영, 허중호, 오기환, 김곡, 김선, 박재현, 권철인, 이현승, 김해곤, 박건용, 최국희
상위 50% (51명)	정지우, 옥상호, 강효진, 김상만 1970, 최진원, 정연석, 김상우, 이진화, 이진동, 원태연, 류장하, 배형준, 신 한술, 강석범, 임경수, 이하, 이해영, 이해준, 김성홍 1956, 조규장, 이종용, 이원석, 김형렬, 유선동, 모홍진, 성시흠, 장윤현, 손태용, 이철하, 하정우, 임필성, 박철관, 천성일, 박홍식 1962, 김중현, 김동욱 b, 박용집, 윤제규, 지길용, 김도경, 이해준, 임영성, 김병곤, 김경권, 김태경, 윤준형, 김인석, 여인광, 엄태화, 최종태, 김성수 1971, 권성국, 권호영

### 3. 제작자 평균 관객 수 10분위 분석

과거 감독이 기획을 직접하고 제작자로 나서던 시기와는 달리, 현재는 제작자의 역할이 작품성과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제작자가 주도권을 쥐고 작품을 기획, 혹은 선택하여 이 작품에 적합한 감독과 배우를 끌어들이는 형태의 작업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영진위의 데이터에서 제작자로 등재된 사람을 작품당 최대 2명까지 제작자로 분류하여 제작자 평균 관객 수 10분위를 구했다. 총 1,143명의 제작자가 1,458편의 한국영화를 제작하였다. 평균 1.92편의 영화를 제작한 것이다. 공동제작자의 경우, 각각 다른 영화로 산정하였다. 공동제작의 경우, 어느 제작자가 뛰어난 역할을 하였는지를 해당 영화에서 분류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그 제작자의 다른 제작 영화에서의 흥행 성과를 반영하는 제작자 평균 관객 수를 통해서 공동제작자가 능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1,143명의 제작자 중에서 제작 편수가 1편인 경우는 총 763명이고, 2편인 경우는 178명, 10편 이상 만든 경우는 19명으로 260여 편의 영화를 제작하였다.

표본 기간에 제작자가 만든 영화들의 평균 관객 수 상위 10명을 살펴보면, 이들의 작품 수는 각각 1개이며, 1970년에 출생하여 2007년이나 2008년에 데뷔하여, 평균적으로 36세에 데뷔하였다. 이들의 현재까지의 업계 경력은 9.1년이다. 이들은 1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천만 관객을 동원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보면 일상적이라기보다는 특이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위 1%보다는 상위 10% 구간과 20% 구간에 속한 제작자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작자의 총관객 수를 기준으로 한 상위 10명을 살펴보면, 평균 관객 수 상위 10명에 해당하는 제작자가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총관객 수 상위 10명의 일반적인 제작자 모습은 평균 11.09편의 작품을 제작하여, 편당 3백57만5천여 명의 관객동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의 출생연도 범위는 1964년부터 1976년까지 걸쳐 있고 평균 출생연도는 1967년이고 평균 데뷔 연도는 2004년, 평균 데뷔 나이는 33세이다. 이들 제작자는 평균 관객 수 10분위에서 상위 10분위에 2명, 상위 20% 구간에 6명, 상위 30%에 2명, 상위 50%에 1명이 있다.

제작자의 작품 수 상위 10위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평균 관객 수 상위 10명에 해당하는 제작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제작자는 평균 관객 수 10분위에서 상위 10% 구간에 4명, 상위 20% 구간에 5명, 상위 30% 구간에 1명이 속해있다. 작품 수 상위 10위 제작자의 평균적

인 모습은 1966년에 출생하여 2001년에 데뷔하고 평균 14.1편의 영화를 만들어 평균 2백8만여 명의 관객 실적을 거두었고, 이들의 출생연도 범위는 1960년에서 1976년 사이이다.

총관객 수 상위 10명과 작품 수 상위 10명 리스트에는 중복되는 이름이 많이 보인다. 두 리스트에 중복되는 제작자는 장원석, 이유진, 유정훈, 윤제균, 정태원, 김미희 등 6명이다. 김미희의 경우 작품 수는 26편으로 1위지만 총관객 수에서는 9위이고, 상위 50분위(267위)에 속한다.

표 13. 다양성 포함 제작자 평균 관객 수 10분위

흥행 10분위	제작자 평균 관객 평균	평균 관객 수 범위	평균 작품 수
상위 1% (11명)	12,549,836	1천424만여 명~1천156만여 명	1
상위 10% (114명)	4,821,731	1천424만여 명~225만4천여 명	2.47
상위 20% (115명)	1,575,582	~120만1천여 명	3.01
상위 30% (113명)	905,816	~63만9천5백여 명	3.04
상위 40% (115명)	453,202	~28만3천2백여 명	1.93
상위 50% (115명)	162,911	~7만4천7백여 명	1.88
하위 50% (571명)	8,841	~1명	1.37

표 14. 작품 수 상위 10위 제작자

이름	작품 수	평균 관객 수 (명)	분위	출생 연도	데뷔 연도
김미희	26	1120615.846	50분위	1964	1997
정훈택	17	1290946	40분위	1967	2002
차승제	15	793324.5333	하위 50분위	1960	1993
정태원	14	2089288.571	30분위	1964	1997
장원석	12	3285057.667	20분위	1976	2008
윤제균	12	2724439	20분위	1964	2002
심재명	12	1643780.75	40분위	1964	2000
만 진수	12	1196608.75	50분위	1972	2005
이유진	11	3222507.545	20분위	1968	2004
유정훈	10	3473916.6	20분위	1964	2010
평균	14.1	2,084,048.53		1966.3	2001.8

이들 제작자는 평균 관객 수 10분위에서 상위 20%에

4명, 30%에 1명, 40%에 2명, 50%에 2명, 하위 50%에 1명을 위치시키고 있다. 평균 관객 수의 경우 최근의 두드러진 흥행실적을 반영하는 반면에 작품 수가 1편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즉 꾸준하게 비슷한 실적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시계열적인 분석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점은 감독의 경우와 다른 양상이다. 총관객 수와 총작품 수의 경우, 과거의 경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로 볼 때, 친숙한 제작자들의 이름이 많이 보인다.

따라서 제작자의 경우, 제작자 평균 관객 수만을 가지고 제작자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더욱 시계열적인 분석을 통해서 특정 제작자의 경력이 상승세인지 하강세인지 경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감독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작품에 관여하였는지 아니면, 실무만을 담당하였는지에 대한 정성적 고려가 필요하다.

#### 4. 다양성 제외 제작자 평균 관객 수 10분위

다양성을 제외한 855편의 한국 극영화를 제작한 제작자는 696명이다. 한 편의 영화에 최대 2인까지 제작자로 입력하여 데이터를 처리한 결과, 총 696명의 제작자가 1,371편의 영화를 제작하여 평균 1.97편의 영화를 제작한 셈이다.

1개의 작품에만 제작자로 등록된 경우는 총 451명이다. 2편 이상 제작한 제작자들은 총 245명으로 920편의 영화에 제작자로 등록되었다. 평균으로는 3.76편이다. 2편을 제작한 경우는 122명이고, 최대 29편을 제작한 경우는 1명이다. 각 구간에서 제작 편수가 1편인 제작자의 비율은 상위 1%의 경우, 100%이고, 하위 50% 구간에서는 78.74%, 상위 10% 구간에서는 65.21%로 점유하고 있다. 상위 40% 구간의 평균 관객 수 범위의 최솟값이 1백만 명이며, 855편의 상업 극영화 평균 관객 수도 상위 30%와 상위 40% 구간 사이에 위치한다.

안동규, 차승재, 강우석 등 2000년대 초반에 유명한 제작자들의 경우, 최근의 작품활동이 저조하거나 실적이 좋지 않아서인지 상위 50% 구간이나 그 이상의 구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감독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작품 수가 1편인 경우

는 제작자의 역량을 평가할 때 주의를 기해야 한다. 사례 수 즉 작품 수가 많을수록, 일회성이나 우연의 산물이 아닌, 제작자의 평균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본다.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의 제작자라고 하더라도, 여러 영화의 제작에 관여하여 위험산전전략을 채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이 경우, 흥행에 실패한 영화들의 영향에 크게 좌우되어, 평균 관객 수 10분위 등급에서 우리가 인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낮게 나타난다.

표 15. 다양성 제외 제작자 평균 관객 수 10분위

평균 관객 수 10분위	제작자 평균 관객 수	평균 관객 수 범위	평균 작품 수	1 편제작자 수
상위 1% (6명)	13,369,251.33	1천424만여 명~1천270만5천7백여 명	1	6
상위 10% (69명)	6,597,869.42	1천424만여 명~341만5천7백여 명	1.94	45
상위 20% (70명)	2,614,570.33	~2백6만6천3백여 명	2.76	29
상위 30% (69명)	1,641,384.85	~135만3천7백여 명	2.88	33
상위 40% (70명)	1,181,060.89	~1백2만5천7백여 명	1.93	36
상위 50% (70명)	828,577.96	~64만5천9백여 명	2.29	34
하위 50% (348명)	197,286.97	63만9천5백여 명~1명	1.33	274

그리고, 감독이 주도권을 쥐고 영화제작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감독의 역량에 제작자의 역량이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며 이 경우, 제작자의 역량이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다. 제작자가 주도권을 쥐고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만 더욱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5. 다양성 제외 제작사 평균 관객 수 10분위

보통 영화제작사는 영화감독 출신이거나 제작자 출신이 자신들의 회사를 세워서 경영하거나 전문 경영인을 두고 운영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경우, 제작자나 감독은 작품마다 다른 영화제작사에서 작업하지 않고, 자신만의 회사 이름을 걸고 꾸준하게 작품을 제작해 낼

수 있다. 작품에 따른 이합집산이 잦은 인력 대신에 제작사를 기준으로 평균 관객 수를 산정하여 경영상의 실적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서도 영화 한 편의 제작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 제작사보다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사업을 꾸려나가는 업체의 데이터가 더욱 신뢰 가능한 데이터일 것이다.

표 16. 다양성 제외 평균 관객 수 10분위 제작자들

평균 관객 10분위	제작자 이름
상위 10% (69명)	이상직, 길영민, 김정민, 임민섭, 김민국, 김성민, 정진완, 유석동, 이하나, 이성훈, 이동하, 김연호, 정병욱, 박찬욱, 안수현, 제임스 B.강, 최정호, 주승환, 안인기, 국수란, 백지선, 원영식, 박철수, 양창훈, 임승룡, 홍재준, 김방현, 서동현, 김학순, 김미진, 김달중, 임지영, 송명철, 원동연, 정태성, 정문규, 이승엽, 전계순, 김민성, 윤종빈, 강혜정, 최재원, 김세훈, 정미영, 강성호, 조성민, 이은하, 정주균, 최용배, 박지성, 이용우, 문성준, 이진숙, 신혜연, 이한태, 문계선, 이상용, 오승현, 한재덕, 조진규, 이선미, 김성환, 조영욱, 이혁중, 이혜진, 황근화, 장원석, 정상민, 이준택
상위 20% (70명)	천성일, 김현우, 이택동, 나병준, 엄용훈, 박도준, 박창현, 유경훈, 이유진, 임지문, 김동주, 정지호, 박현태, 문양권, 이원태, 배성은, 임영주, 주용호, 최지훈, 유주영, 박영진, 정선영, 박태준, 이민희, 주필호, 이한승, 남지용, 구본환, 성창연, 이은, 손광익, 황기성, 황윤화, 윤재균, 김종민, 이원명, 장현, 박신주, 조현석, 박성근, 심재만, 이수남, 윤수진, 변봉현, 신창길, 이창동, 정재희, 김중현, 이우정, 임영호, 김정아, 양중경, 이민호, 김태은, 방주성, 유인택, 임성빈, 김민기, 이상원, 정의석, 박선영, 임충렬, 송대찬, 차지현, 최아람, 이정은, 허태규, 석명홍, 이종호, 최석민
상위 30% (69명)	김호성, 정종훈, 윤인범, 김성진, 구성목, 신유영, 임승용, 김승범, 임희철, 한선규, 김동우, 박진표, 김선용, 김병길, 손창용, 김지혜, 손상범, 이지훈, 최원, 박경덕, 이병혁, 이준연, 심재명, 손정우, 김용화, 최현목, 김진섭, 최진화, 김성근, 윤홍준, 김민수, 안상훈, 김재중, 석재승, 안병기, 이순열, 김상근, 최낙권, 강현우, 정태원, 류승완, 김지훈, 조민환, 김성수, 이준동, 박형준, 김두찬, 권호영, 안영진, 조동기, 조승연, 봉준호, 윤기호, 이광우, 김대우, 김순호, 김성희, 천호균, 최준환, 김조광수, 노종윤, 조유호, 이춘영, 임상진, 박남성, 심보경, 조철현, 정성훈, 최연주
상위 40% (70명)	고길수, 정훈탁, 정지우, 이승효, 김수진, 김명규, 박춘배, 천승철, 김용재, 김상오, 박광원, 김봉서, 이경규, 조성원, 신혜은, 한성규, 장진, 이태원, 최순식, 한재담, 강봉래, 이용호, 재정훈, 최관용, 배성용, 김윤호, 박무승, 문영화, 한지승, 안영준, 고미희, 장태곤, 조정준, 정승혜, 정용기, 이상학, 이서열, 김상일, 김현철, 윤창업, 신연식, 이근두, 유재혁, 한길로, 백선희, 송지은, 김남수, 허재철, 양현찬, 오주현, 장미애, 채희승, 김상민, 김광수, 신범수, 만진수, 하정완, 김정희, 현창룡, 김성철, 박매희, 이덕재, 김형준, 오정환, 김우광, 김미희, 강명찬, 문보미, 정영주, 강태우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회사 중심의 분석이 어렵다. 그 이유는 앞에 서술하였듯이, 1998년 이후 재편되어 4대 배급사와 멀티플렉스 상영관 시스템으로 한국영화계의 생태계가 새로 형성되는 과정

에서 구체제에서의 주도자들이 물러나고 새로운 세대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제작 관련 회사의 90%가 2000년 이후에 설립되고 평균 기업 존속기간이 9.6년임이 이를 증명한다. 보통 기업의 회계는 1년 단위로 결산이 이뤄지는데, 배급사나 대규모 제작사가 아닌 1인 오너 중심의 소규모 제작사의 경우, 2~3년에 1편의 영화를 제작하므로, 그 기간에 수입이 발생하기보다는 지출만이 있게 되고, 할리우드의 관습과는 달리, 시나리오 등의 저작권과 판권, 그리고 이전에 개봉한 영화들의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지 않은 한국영화계의 현실에서는 1년 단위의 회계결산을 통한 기업평가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더불어서, 수입과 지출, 수익과 손실을 명확하게 하려고, 영화 프로젝트 단위로 설립되고, 영화의 제작과 상영이 이뤄진 뒤에는 비용을 처리하고 이익을 분배한 뒤에 해산하는 영화 1편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중심의 특수목적 회사(SPC) 형태의 제작이 권장되는 활발한 문화콘텐츠 산업에서는 더욱 회사보다는 개인 중심의 평가가 중요시된다고 본다.

제작사 중심으로 연간 회계단위가 아닌, 제작사 평균 관객 수 기준과 제작 편수 기준으로 살펴보고서 개인 단위와의 비교를 통해서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대상 기간 13년 동안에, 다양성을 제외한 855편의 한국 극영화를 제작한 제작사는 578개사이다. 여러 회사가 공동제작한 경우는 별도의 하나의 회사로 취급하였다. 1개의 영화만을 제작한 경우는 465개이다. 1개사 단독으로 1편만을 제작한 회사는 총 224개이다.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1편만을 제작한 경우는 241편이다. 113개의 회사에서 2편 이상씩 387개의 영화를 제작하였다. 이들이 제작 편수를 기준으로 상위 10% 구간에 드는 회사이다. 단독 제작사로는 싸이더스가 21편으로 가장 많이 제작하고, 그다음은 태원(14편), 시네마서비스(10편), 영화사 집(8편), 씨네이천(8편) 순이다. 이들은 제작 편수 기준 상위 1% 제작사들이다.

1995년에 설립된 싸이더스는 1998년 <태양은 없다> 제작을 시작으로 많은 한국영화의 제작과 배급을 담당하다가, 2005년 싸이더스 대표인 차승재 대표가 김미희가 대표인 좋은 영화사와 합병하여 싸이더스에프엔에

이치가 되었다가, 2006년 KT가 싸이더스 지분 51%를 280억 원에 넘겨받은 이후, 차승재가 물러남에 따라서 회사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래서 표본 기간에 21편을 단독제작하였으나 그 영화들의 제작 시기는 2009년까지가 대부분으로 이후의 제작 실적은 미미하여 현재의 한국영화에는 미치는 영향이 적다. 강우석 감독의 시네마서비스도 1993년 강우석 프로덕션을 시작으로 2000년대 전후, 영화제작, 배급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2002년의 경우 프리머스 시네마 멀티플렉스 체인을 세워서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를 완성했으며, <실미도>(2003년) 을 통해서 1천만 관객을 동원하는 흥행실적을 세웠으나, 2005년 강우석 감독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CJCGV의 프리머스 시네마 인수, CJ엔터테인먼트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나, 영화 흥행에 계속 실패하여, 2007년 강우석 감독이 다시 복귀하였으나, 그 쇠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두 영화사의 사례에서 보듯이 예전의 강자가 더 이상, 현재의 강자가 아님을, 짧은 기간에 많은 지각변동을 겪은 한국영화계를 보여준다. 강우석, 차승재 모두 1960년 출생으로 한국영화계의 잠재적 정년인 55세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이들의 나이 45세 이후로 점차 흔하디 이야기하는, 흥행 감각이 떨어져 갔음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세대교체가 이뤄지는 것이다.

반면에 영화사 집은 이유진 대표가 2005년 설립하여, <마스터>(2016년)를 통해서 715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등 2018년 8월 현재 총 12편을 제작하여 모든 영화가 1백만 관객 이상의 흥행실적을 세우고 있다. 이춘연의 씨네이천의 경우, 1995년 설립 이래, 총 25편의 영화를 만들고, <더 테러 라이브>(2013년)를 통해 558만여 명의 최대 관객동원 기록을 세우지만, 표본 기간에 최저 7만여 명의 관객 기록을 보이는 등, 총 8편의 영화 중 4편에서 1백만 명 이하의 흥행기록을 보인다. 그리고 2013년 이후에 제작한 영화가 없다. 이춘연 대표는 1951년생이다.

제작사 평균 관객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영화사 집은 상위 10% 구간에 위치한다. 싸이더스 30% 구간, 시네마 서비스는 상위 20% 구간, 씨네이천 30% 구간, 태원

20% 구간에 들어간다. 제작사 평균 관객 수 상위 1% 구간의 영화사는 1971년생인 최동훈 감독의 아내인 안수현 대표가 있는 케이퍼 필름이 영화 2편을 통해서 평균 1천2백8십4만4천5백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여 1위이다. 리얼라이즈픽처스, 씨네월드, 영화사 레드피터, 주피터 필름, 빅스톤픽처스, 모호필름, 오피스 픽처스, 필름잇수다, 제이케이필름, 위더스 필름 등이 상위 10% 구간에 포진해 있다.

표 17. 다양성 제의 제작사 평균 관객 수 10분위

평균 관객 10분위	제작사 평균 관객 평균	제작사 평균 관객 수 범위
상위 1%(5개)	12,404,845.8	1천284만여 명~1천174만6천여 명
상위 10%(57개)	6,431,491.92	1천284만여 명~338만5천7백여 명
상위 20%(58개)	2,397,202.93	~1백86만5천여 명
상위 30%(58개)	1,545,581.11	~1백27만6천여 명
상위 40%(58개)	1,125,019.16	~97만5천여 명
상위 50%(59개)	780,402.23	~63만여 명
하위 50%(289개)	197,131.19	~1명

### 6. 주연배우 평균 관객 수 10분위 분석

영진위 데이터베이스에서 주연배우는 최대 6명까지 기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배우가 동원한 평균 관객 수의 10분위 분포를 산출하였다. 1786편의 영화에서 다큐멘터리 236편, 애니메이션 66편, 공연물 15편 등을 제외한 1,458편의 극영화에 총 1,683명이 주연배우를 맡았다. 배우 1인당 평균 0.87편에의 작품에 출연한 것이다. 물론 영진위 데이터베이스에 주연배우로 기록된 경우이라도 조연급인 경우도 많고 실제 관객들이 하나의 브랜드로서 브랜드 로얄티를 보일 수 있는 배우는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들 배우 전원이 티켓 파워를 발휘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1,683명의 주연배우 중에서 1편에만 주연한 경우는 1,042명이고, 2편인 경우는 230명이다. 따라서 1편 이상의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한 배우의 수는 641명이다. 3편 이상에 주연배우로 출연한 경우는 총 411명으로 이들이 2,649편의 영화에 출연하여 1인당 평균 6.45편에 출연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04

년부터 2017년 8월 말까지 약 13년간 매년 1개의 영화 이상에 출연한 빈도를 보면, 즉 주연 작품 수가 13편 이상은 모두 41명으로 이들은 평균 16편의 영화에 출연하였다. 가장 많은 영화에 주연을 맡은 경우는 황정민으로 28편에 주연을 맡았다. 13년간, 매년 2.15편의 영화에 주연을 맡은 셈이다. 그다음으로는 정재영(24편), 하정우(24편), 김윤식(22편), 설경구(21편), 유해진(20편), 오달수(18), 박해일(18편), 이선균(17편), 정유미(16편), 이범수(16편), 류승범(16편), 송강호(16편), 류승룡(16편), 조재현(15편), 성동일(15편), 마동석(14편), 강동원(14편), 김혜수(12편), 정우성(11편) 등의 출연실적이 있다. 18편에 주연을 맡은 오달수, 박해일, 설경구, 17편에 주연을 맡은 류승범, 이선균, 류승룡, 박희순, 성동일, 16편에 주연을 맡은 정유미, 이범수, 송강호, 엄정화가 출연작품 수 상위 10%에 해당하는 연기자이다. 출연작품 상위 10%의 연기자 17명은 전체편수 1366편의 23.57%에 주연을 맡았다. 평균 18.94편, 연평균 1.45편의 주연을 맡은 셈이다. 주연배우 159명 중 49.05%인 78명이 출연작품 하위 50% 구간에 속하며, 전체편수의 21.45%인 293편을 주연을 맡았다. 이들은 연간 0.29편에 주연을 맡은 셈이다.

표 18. 주연 작품 수 10분위

작품 수 10분위	주연 작품 수 평균	주연 작품 수 범위	평균 관객 수
상위 1%(16명)	19.19편	28편~16편	3,129,224.69
상위 10%(176명)	10.18편	28편~6편	1,614,921.26
상위 20%(235명)	3.65편	5편~3편	622,269.64
상위 30%(230명)	2편	2편	309,532.83
상위 40% 이하 (1,042명)	1편	1편	146,919.77

출연작품 수 상위 10%에 속하는 연기자 중에서 하정우, 송강호는 평균 관객 수 상위 10%에, 류승룡, 황정민은 상위 20% 구간에, 유해진, 류승범, 설경구는 상위 30% 구간에, 김윤식은 상위 40% 구간에, 속한다. 하정우와 송강호는 출연작품 수로도 상위 10%에 속하고 평균 관객 수도 상위 10%에 속한다.

표 19. 다양성 포함 배우 평균 관객 수 10분위

총행 10분위	주연 평균 관객 평균	주연 평균 관객 수 범위	평균 작품 수
상위 1% (16명)	6,749,800	1천174만6천여 명~461만1천8백여 명	7.75편
상위 10% (168명)	2,835,927	1천174만6천여 명~129만2백여 명	6.86편
상위 20% (168명)	795,782.5	~43만8천7백여 명	5.31편
상위 30% (168명)	210,616.08	~8만989명	2.83편
상위 40% (169명)	37,735.03	~1만7천6백여 명	1.64편
상위 50% (168명)	10,150.83	~5천6백여 명	1.63편
하위 50% (842명)	1,364.85	~7천7백여 명	1.28편

표 20. 다양성 제외 배우 평균 관객 10분위

총행 10분위	주연 평균 관객 평균	주연 평균 관객 수 범위	평균 작품 수
상위 1% (8명)	8,102,796.79	1천174만6천여 명~732만8천8백여 명	2.25편
상위 10% (78명)	4,444,272.84	1천174만6천여 명~285만4천여 명	6.07편
상위 20% (78명)	2,137,561.9	~161만3천3백여 명	6.13편
상위 30% (79명)	1,282,078.78	~1백8천4백여 명	4.84편
상위 40% (78명)	812,745.69	~63만1천8백여 명	4.01편
상위 50% (79명)	486,575.1	~32만7천6백여 명	2.24편
하위 50% (392명)	63,394.32	~2명	1.28편

평균 관객 수를 기준으로 상위 1% 구간에 든 주연배우 들은 16명인데, 이들 중에서 출연작품 수가 1편인 배우는 모두 6명이다. 감독과는 달리 이들이 작품 흥행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힘들고 다른 출연 배우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평균 관객 수와 출연작품 수 양자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많은 영화에 출연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배우가 관객에게 노출되어 지명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대중이 선호하는 배우라고 볼 수 있다.

평균 관객 수 상위 10% 구간에 든 주연배우 들은 평균적으로 편당 최대 8백91만여 명에서 최저 4백11만여 명의 범위를 보이고 평균으로는 5백35만여 명이다. 하위 50%인 78명 중 38명의 평균 관객 수는 1백만 명 이하이다.

7. 다양성 제외 주연배우 평균 관객 수 10분위

다양성 영화를 제외한 855편의 극영화에 대해서 최대 6명의 주연배우를 입력한 결과, 총 785명의 배우가 2,326편의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 1인당 2.96편에 출연한 것이다. 배우 중 56.17%인 441명이 하나의 영화에만 출연하였다. 2편 이상 출연한 배우 344명이 1인당 5.48편에 출연한 것으로 산정할 수 있다.

표 21. 다양성 제외 배우 10분위 구간 배우들

평균 관객 수 10분위	주연배우이름
상위 10%	서옥별, 크리스에반스, 이준기, 전지현, 배두나, 홍진희, 유호정, 이연경, 이정재, 황정민, 오달수, 고아성, 이현우, 이완, 원빈, 심은경, 한효주, 김종업, 송강호, 류준열, 김미숙, 문정희, 박보영, 김동원, 정재영, 박종훈, 김해숙, 김영필, 김태리, 이준호, 장동건, 류승룡, 엄정화, 김무열, 배수지, 손예진, 강동원, 김혜수, 송중기, 이종석, 조인성, 김윤진, 김대명, 강소라, 공유, 이영애, 한가인, 최리, 강하나, 유아인, 김강경, 김우빈, 임시완, 나영희, 김지호, 이병헌, 문근영, 정우성, 전혜진, 유해진, 류승범, 하정우, 임여진, 김윤석, 천우희, 김남주, 민효린, 장영남, 박해일, 변희봉, 정진, 김성원, 김해자, 이다윗, 장광, 조승우, 나문희, 최민식
상위 20%	김우성, 진경, 전미선, 소지섭, 정유미, 허준호, 박시후, 안성기, 문채원, 이정현, 이요원, 최승현, 박원상, 김남길, 주진모, 김원희, 지창욱, 한지민, 박신혜, 김주혁, 선우선, 최희서, 이하늬, 배성우, 광도원, 차태현, 심형래, 김향기, 하지원, 정우, 김수미, 조여정, 손현주, 현빈, 임주환, 백윤식, 이경영, 김상중, 박서준, 김명민, 엄태웅, 지성, 유준상, 송지효, 한혜진, 정준호, 조재현, 조성석, 엄지원, 한은정, 이승기, 한석규, 김래원, 오지호, 현영, 강지환, 이하나, 이보영, 박혁권, 권상우, 임창정, 김영철, 박신양, 실경구, 조진웅, 문소리, 김민희, 이연희, 김새론, 김영광, 최강희, 이민호, 신세경, 임수정, 신하균, 남규리, 진구, 이병수
상위 30%	김희애, 도경수, 이미연, 김보경, 이선균, 김인권, 최다니엘, 고수, 권율, 차승원, 안재홍, 마동석, 김하늘, 장서희, 박유천, 김수현, 최민수, 이나영, 윤세아, 이민정, 아은주, 수애, 봉태규, 박성웅, 김아중, 김옥빈, 강예원, 김상호, 전도연, 강하늘, 김동욱, 염정아, 서교, 오정세, 이재훈, 임태무, 김민준, 이동진, 윤여정, 이정진, 정진영, 박솔미, 김승우, 진태원, 유선, 장현성, 엄기준, 정두홍, 이문식, 전혜빈, 조성하, 김재욱, 박근형, 송해교, 오태경, 박철민, 변요환, 신민아, 강성진, 유재영, 이시영, 박용우, 여진구, 주지훈, 송영창, 성동일, 정경호, 장혁, 박시연, 최진호, 이상용, 이성민, 이유영, 김성균, 김갑수, 박지영, 최성국, 김영애, 유승호
상위 40%	이민기, 최성민, 최정윤, 이세은, 한지혜, 손병호, 신현준, 김민정, 엄태우, 정지훈, 송승헌, 박희순, 조원재, 전호진, 이영훈, 이도겸, 권오승, 신이, 주상욱, 이지훈, 신명철, 김태희, 차인표, 김소루, 강재경, 유지태, 하석진 송새벽, 탁웨이, 유연석, 공효진, 유오성, 주원, 박지빈, 오연수, 정웅인, 임원희, 조한선, 배용준, 임은경, 김고은, 양동근, 함은정, 김신아, 유다인, 박진희, 조민수, 박선혜, 박건형, 정욱, 박정민, 윤계상, 한채영, 류현경, 윤제문, 다니엘 헤니, 김효진, 전호진, 최정원, 성유리, 문정혁, 장근석, 박예진, 오연서, 김강우, 박민영, 김 예륜, 한예리, 윤진서, 추자현, 진세홍, 송일국, 송민정, 정소민, 고소영, 이동욱, 송윤아, 진세연

한편, 조연배우의 경우, 표본 기간 내에서, 78명이 465편의 영화에서 조연으로 출연하였다. 평균 5.96편에 출연한 셈이다. 가장 많은 작품에 조연으로 출연한 배우는 오달수로 26편, 그다음은 이경영으로 25편이다.

표 22. 조연 출연작품 10분위

조연작품 수 10분위	작품 수 범위	총 작품 수	조연배우 이름
상위 10%	24-21편	162	오달수, 이경영, 배성우, 김병욱, 김의성, 장영남, 라미란
상위 20%	20-10편	125	박철민, 윤제문, 조진웅, 김원해, 유해진, 장광, 진경, 조재윤, 고창석
상위 30%	9-6편	80	박병은, 김홍파, 조우진, 박성웅, 김대명, 공형진, 정유미, 광도원, 김인권, 김성균, 박혁권, 이엘
상위 40%	5-4편	37	안재홍, 김수로, 마동석, 이일화, 성동일, 천우희, 하정우, 류현경, 송새벽
상위 50%	3편	15	이문식, 김강우, 이선균, 류준열, 김수미

8. 변수별 10분위 교차분석

다양성 제외 10분위를 바탕으로, 관객 수 10분위, 감독, 제작자, 배우 10분위 분석 간의 내용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우선 감독과 제작자보다는 배우가 1인당 참여 편수에 있어서 1편 이상 높다. 그리고 2편 이상 참여한 경우, 즉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해서 영화제작에 참여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감독보다 제작자는 1편을 더 제작할 수 있었으며, 배우는 2.6편에 더 출연할 기회를 가졌다.

200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13년(12년 8개월)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개봉된 한국영화 중, 에로영화와 다양성 영화를 제외한 상업 극영화 855편을 만드는 데에, 감독은 509명, 제작자는 606명, 배우는 785명이 참여하였다. 13년간, 감독은 1인당 1.68편, 제작자는 1인당 1.97편, 배우는 1인당 2.96편에 참여한 셈이다.

509명의 감독 중 연출작이 1편인 감독은 모두 324명이다. 이들을 제외한 두 작품 이상 연출 감독들 185명이 531편을 만들어서 두 작품 이상 연출 감독들의 평균 연출 편수는 2.87편이다. 두 작품 이상 제작한 제작자는 245명으로 이들 1인당 평균제작 편수는 3.76편이다. 2편 이상 출연한 배우는 345명으로, 두 작품 이상 출연한 배



우의 평균 출연 편수는 5.47편이다. 13년의 기간을 고려한다면, 감독은 평균 4.5년에 1편을 연출하고, 배우는 2.38년에 1편에 출연한다.

평균 작품 수에서 가장 많은 집단과 구간은 배우의 평균 관객 수 상위 20% 구간으로 이 구간의 평균 작품 수는 6.13편이다. 배우의 상위 10%는 6.07편, 상위 30% 구간은 4.84편, 상위 40% 구간은 4.01편이지만 하위 50% 구간은 1.28편이다. 감독의 평균 작품 수가 가장 높은 구간은 상위 10% 구간으로 2.74편이고, 제작자의 경우는 상위 30% 구간의 2.88편이다. 제작자의 상위 10% 구간은 1.94편으로 감독의 상위 10% 구간의 2.74편보다 0.8편이 작다. 그만큼의 새로운 제작자들이 상위에 자리 잡고 있다. 반면에 배우의 경우는 지명도가 티켓파워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노출될수록 즉 많이 출연할수록 상위구간으로 가거나, 아니면 연기력이나 지명도가 있는 소수의 배우를 중심으로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감독과 배우의 경우,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그들 간의 평균 관객 수의 격차가 크지 않다. 즉 감독과 배우 각각 집단 간의 격차가 제작자 내의 격차보다는 작다는 것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내는 경우에는 배우나 감독에 따라서 변화의 폭이 제작자의 그것보다 작다는 것이다. 이점은 상위 10% 구간 내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 상위 10% 구간 평균값과 상위 20% 구간 평균값과의 차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10분위에서 상위 10% 구간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가 가장 큰데, 즉 같은 구간에 있다 하더라도, 양극화가 가장 심화된 경우인데, 제작자의 경우가 가장 차이가 크다. 배우의 경우 10% 구간 내 차이가 889만여 명, 감독의 경우는 883만9천여 명인 데 반해, 제작자는 1천83만여 명이다. 영화 흥행 10분위에서도 상위 10% 구간의 최대와 최솟값의 차이가 1천3백96만3천여 명이나 된다.

구간별 평균값의 경우도 상위 10%와 상위 20% 구간이 가장 차이가 크다. 제일 큰 집단은 제작자 집단으로 398만3천여 명의 차이를 보인다. 감독의 경우는 289만2천여 명, 배우의 경우는 230만여 명의 차이를 보인다.

감독의 10분위에서 상위 20%와 상위 30% 평균값의

차이는 74만4천여 명, 상위 30%와 상위 40% 평균값의 차이는 39만1천여 명, 상위 40%와 상위 50% 평균값의 차이는 29만6천여 명, 상위 50%와 하위 50% 평균값의 차이는 47만3천여 명이다. 배우의 경우는 각각 감독의 경우보다 10만여 명이 많고, 상위 50%와 하위 50% 평균값이 42만3천여 명으로 감독과 5만여 명의 차이만 보인다. 반면에 제작자는 상위 20%와 상위 30%에서 97만3천여 명, 상위 30%와 상위 40%에서 46만여 명, 상위 40%와 상위 50%에서 35만2천여 명, 상위 50%와 하위 50%에서 63만1천여 명의 차이를 보여서 감독과 배우보다 큰 격차를 보인다.

구간 내 인원수에서는 감독이 50명 내외, 제작자가 69명 내외, 배우가 78명 내외이다.

각각의 집단에서 구간별 평균값이 차이가 가장 작은 구간은 상위 40%에서 상위 50% 구간이다. 이 구간은 평균 관객 수가 100만 명 선인 구간이다. 이 구간보다 상위로 갈수록 구간에 그리고 구간 내에 격차가 벌어지고, 아래로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1백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감독이나 제작자, 배우 간에 차이가 크지 않지만, 상위로 갈수록 그 격차는 벌어지며, 특히 제작자의 경우는 그 차이가 세 집단 중에서 가장 크다. 따라서 제작자의 선택이 다른 두 집단보다 흥행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관객 수 100만 명을 들인 영화는 흥행 10분위의 상위 40% 구간에 위치하는데, 평균 관객 수 1백만 명의 감독은 상위 40% 구간의 중간, 제작자도 상위 40% 구간, 배우는 상위 30% 구간에 위치한다. 기간 동안 관객 수 1백만 명 이상의 영화는 341편이다. 평균 관객 수 1백만 이상의 감독은 169명, 제작자는 282명, 주연배우는 479명이다. 감독의 33.2%, 제작자의 40.52%, 주연배우의 61.02%가 이에 해당한다. 감독 인력이 가장 작은 수만이 100만 관객을 동원한다. 다양성까지 포함하면, 851명의 감독 중에 19.86%만이 해당한다. 제작자의 경우는 1,143명의 24.67%이다. 배우 중에 단역, 조연을 제외한 계산이라서 이들과 비교한다면 배우 소수의 배우가 이들 주연배우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양성을 포함한 주연배우 1,683명을 기준으로 하면 28.46%이다.

흥행 상위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 상위구간 내에서도 격차는 크게 존재하며, 가장 큰 격차를 만들어내는 집단은 제작자 집단이다.

#### IV. 맺는말

통계적으로 한국영화를 비판적으로 보기를 원한다면, VOD용 예로 영화와 다양성 영화를 포함하라. 이들 영화가 흥행 10분위 하위 50%에 대다수가 포진하여, 전체 평균 관객 수를 끌어내려서 작품 수는 많은데, 흥행실적은 안 좋은 것으로 나올 것이다. 한국영화를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자 한다면, VOD용 예로 영화와 다양성 영화를 제외한, 연간 80여 편 내외의 본격 상업 극영화만을 통계의 대상으로 삼으면 된다. 그러면 연간 제작되는 한국영화의 편수 즉 분모가 줄어들고, 흥행 10분위 하위 50%에 속하는 예로영화와 559편의 다양성 영화가 평균 관객 수를 끌어내려서 전체적으로 흥행성적이 좋지 않게 나타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2004년 1월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상영을 마친, 개봉된 한국영화는 2,328편인데, 이 중 542편이 VOD용 예로영화, 603편은 다양성 영화이고, 순수 상업 극영화는 855편이다.

그러나 이렇게 예로영화와 다양성 영화를 배제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우선 이들도 한국영화 생태계 내에서 일어나는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산업이 건전하다면, 본격 상업영화 제작하여 생업을 꾸려나갈 영화인들이 영화업계의 독과점구조와 양극화로 인하여, 영화제작에 참여할 기회, 스태프로 고용된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렇다고 직업을 바꾸는 업종전환을 시도하지 못한 채, 저예산, 짧은 제작 기간의 예로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현상으로 예로영화의 비중이 커지는 것일 수 있다. 독과점구조가 완화되어 다양한 영화제작의 기회가 생긴다면 예로영화에 종사하던 인력을 일반 상업 영화로 끌어들일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예로영화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한국영화계의 건강하지 못한 환경을 보여주는 시금석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논리가 다양성 영화의 제작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또한 다양

성 영화는 상업영화계의 차세대 인력, 예비주자를 양성하는 통로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활발한 다양성 영화의 제작을 통해서 도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갈 산업예비군을 키워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연상호 감독은 독립 애니메이션 장편영화를 통해서, 영화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고 성장하여, <부산행>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상업 흥행영화감독으로 자리매김한 바람직한 사례이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다면, 예로영화와 다양성 영화도 분명 한국 영화산업의 한 모습으로 평가대상이 되어야 하고 통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많은 제작 편수로 인해서 한국영화 전체편수에서 과잉 대표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천만 관객동원을 하는 영화가 마치 전체 한국영화 산업의 건진성을 대표하는 것처럼 일반 대중에게 인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본격 상업영화 종사자 중 영화의 창의성 측면에 작용하는 종사자들 즉 감독, 제작자, 주연배우 등이 동원한 평균 관객 수를 기준으로 한 10분위 분석은 프로야구 선수의 연봉처럼, 종사자들의 실적을 바탕으로 그들에 대한 보상을 평가하는 데에 정량적 판단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감독, 제작자, 주연배우가 참여한 영화의 편수를 가지고, 이들이 참여한 영화들이 동원한 관객 수를 나누어서 구한 평균 관객 수를,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으로 삼는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분위처럼 10분위 단위로 구분 지어 본다면, 감독, 제작자, 주연 배우들의 평균 관객 수를 통해서, 이들이 동일 직종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관객동원력을 가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창작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앞으로의 수행을 예측하고 보상을 결정하는 판단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평균 관객 수 1백만여 명의 감독은 10분위에서 상위 40% 중간, 제작자는 상위 40% 구간, 배우는 상위 30% 구간에 속한다. 이들은 다양성을 포함한 전체에서, 감독의 경우는 19.86%, 제작자는 24.67%, 주연배우는 28.46%에 불과한 숫자이다. 각각의 10분위에서 감독, 제작자, 배우가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한다면, 최종 결과물로서 영화의 흥행도 어느 정도의 범위로 일어날 수 있을지를 좀 더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영화 흥행 10분위에서 관객 수 100

만 명을 들인 영화는 흥행 10분위 상위 40% 구간에 위치한다. 이들 영화는 전체 예로 제의 극영화 1,458편의 23.66%인 345편에 불과하다.

평균 관객 수 10분위 분석의 단점은 우선, 사례 수가 작은 경우, 즉 감독의 연출작이나, 주연배우의 출연작이 데뷔작이거나 1편인 경우는 그 단일한 값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사례 수가 많은 경우, 즉 작품이 많은 경우, 배우라면 여러 명이 주연하여 얻어낸 결과에서 본인 1인의 성과를 분리해내는 데에 유리하다. 감독의 경우도 편수가 많으면, 작품에 따른 흥행의 부침보다는 얼마나 이 사람이 최소한 안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1편의 연출, 제작, 주연배우의 경우는 10분위에서 어디에 속하는 가와 더불어서 이 결과가 1편의 결과임을 유의하여, 정성적 부분을 더욱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데뷔감독 등 제작자, 주연배우로 데뷔하는 사람들에게 이들의 이전 실적이 없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우리나라 대다수 영화가 속하는 하위 50% 구간이나, 상위 50% 구간을 임의설정하여 배정하고, 이후, 이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들을 가지고, 10분위 구간을 수정하여 나아가면 될 것이다.

세 번째의 단점은 이 분석이 시계열적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감독이 10년 전에는 활발하게 연출하였는데, 이제 나이가 들에 따라서 슬럼프의 기간으로 들어섰는지, 아니면, 요즘 이 배우가 주목을 받는 뜨는 스타인지를 보여주지 못한다. 즉 개인에 대한 전체 실적의 평균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현재의 추세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말이다.

가령, 이전에 1천만 관객 이상의 높은 흥행을 기록했던 강제규, 강우석 감독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전반적으로 쇠퇴의 추세라든지, 차승재 등의 제작자도 쇠퇴의 길이라든지, 마동석, 조진웅이 조연부터 시작하여, 주연급, 그리고 단독 주연으로 성장하고 또 대단한 흥행기록을 세우는 등 떠오르는 추세라든지 하는 것을 반영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점은 특정 연도에 그들이 참여한 영화가 동원한 관객 수를 그해 한국영화 총관객 수로 나누어서 한 해 동안 한국영화 관객동원에 그 사

람이 참여한 작품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를 연도별로 즉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정량적 평가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성적 평가 즉 언론에서 노출과 호감도, 구전 등을 통한 평가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의 관습은 이러한 정성적 평가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10분위와 같은 정량적 평가를 도입하여 보조적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네 번째로는, 각각, 창작자, 즉 감독, 배우, 제작자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상위 10% 구간에 속한 감독, 제작자, 배우를 인위적으로 묶어준다고 해서, 상위 10% 흥행기록을 낼 수 있는 영화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 간의 친소관계와 인적 네트워크, 배우의 장르적 이미지, 감독의 장르적 선호도 등을 담아낼 수 없다. 이 경우는 감독, 배우, 제작자 간의 인적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서로 간의 연결 관계가 어느 정도 강한지를 측정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정량적 평가로 다음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다섯 번째로, 감독, 제작자, 주연배우 등 각 집단, 혹은 각각의 개인의 기여도를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이점은 모든 영화 관련 분석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과제이다. 여러 명이 주연을 맡는 경우, 누구의 티켓파워에 의해서 이 영화가 성공하였는지, 이 영화의 성공은 제작자의 몫인지 감독의 몫인지, 아니면 누가 더 공헌하였는지, 개별 영화별로 산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10분위 분석을, 1개의 작품이 아닌 여러 작품을 만드는 데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예외적인 성공과 예외적인 실패는 평균을 통해서 상쇄되어서 안정적으로 개인이 성취할 수 있는 결과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정성적 평가의 영역으로 진행하면 될 것이다.

보통 유명 배우를 캐스팅하면, 영화제작을 진행할 수 있는 그린 라이트라고 알려져 있다. 배우들은 단순히 자신의 출연료만을 보고 시나리오를 선택하지 않는다. 자신의 배우로서의 경력과 이미지 구축을 고려하여 작품을 선택하고, 관객들은 또한 그러한 배우의 선택에 대해서 신뢰도를 가지고 그들의 영화를 소비한다. 따라

서 작품을 고르는 안목도 배우의 역량 일부이며, 그래서 배우의 평균 관객 수는 그 배우의 티켓 파워이기도 하면서 배우의 안목과 경륜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한때 성공적인 배우인 최민식의 경우도 여러 영화에서 흥행에 좋은 결과를 낳지 못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 그 자신의 작품을 보는 안목에 대한 평가로 반영되고, 앞으로의 영화를 소비할 때 관객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쳐서 더욱 선택을 망설이게 할 수도 있다. 이병헌의 경우도 <광해>(2012)와 <내부자들>(2015)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지만, 그가 선택한 여러 작품에서의 흥행실적은 좋지 않다. 한류 스타로서 배용준도 영화에서는 스타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영화의 흥행은 예측하기 어렵다. 로봇이 아닌 인간이, 심리적, 정서적 역량과 상호 간의 관계에 많은 의존을 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것에서 파생되는 우연성이 영화를 예술로 만드는 한편, 도박으로도 만든다.

흔히 영화제작의 그린라이트라고 하는 유명 배우의 캐스팅, 흥행감독, 제작자의 기용, 뛰어난 원작의 존재를 담보하더라도 흥행에 실패할 수 있다. 그러한 최근의 사례는 <7년의 밤>(2018)을 들 수 있다. 이 영화는 본 10분위 분석 이후에 개봉된 영화로서, 감독 10분위 상위 10%에 드는 추창민 감독, 배우 10분위 상위 10%에 드는 장동건, 류승룡의 주연, 상위 40%의 송새벽 출연, 제작자 상위 50%의 안은미 제작, 2011년 출간되어 누적 판매 부수 50만 권인 정유정 작가의 원작소설, 상위 10% 제작사 바른손, 4대 메이저 배급사인 씨제이이엔엠 배급, 제작비 85억 원으로, 제작자를 제외하면 상위 10% 구간의 참여로 만들어진 영화이지만, 흥행결과는 손익분기점인 290만여 명에 한참 못 미치는 52만8천여 명으로 흥행 10분위 하위 50%의 결과를 낳았다.

또 다른 최근의 사례로, <인랑>(2018)의 경우, 개봉 3주 만에 IPTV로 상영이 넘어갔다. 제작비가 190억 원이 투입되어 손익분기점이 600만 명이었으나, 86만3천여 명의 관객만을 확보하였다[10]. 이 영화의 감독인 김지운 감독은 감독 상위 10%에 속하고, 주연배우 강동원, 정우성, 한효주는 각각 배우 상위 10%에 속하며, 제작자 김태완의 경우는 하위 50%에 속한다. 이들만 본다면, 영화 흥행 상위 20%(210만-350만 관객 사이)에는

충분하게 들어설 수 있는 작품이다. 일본의 유명한 원작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이 영화의 대본은 <명량>(2014), <군도>(2014)의 대본을 쓴 전철홍 작가가 초고를 쓰고, <밀정>(2016)의 작가 이지민이 그다음으로 다듬고, 마지막으로 감독 김지운이 각색하였다[11]. 김지운 감독은 우리에게,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2008)과 <밀정>(2016)로 알려진 감독인데, 이 두 영화의 흥행기록은 각각 6백68만여 명과 750만여 명이다. 공교롭게도 이 두 영화의 제작자는 최재원으로 <변호인>(2013)을 기획 제작하여 1천만 관객을 동원한 기록을 가진 상위 10% 제작자이다.

지명도가 높은 뛰어난 원작을 가진 점과 뛰어난 영화 대본 작가가 각색에 참여하고, 감독, 배우가 상위 10%로 있었지만 흥행은 실패한 것이다.

반면에 <탐정: 리턴즈>(2018)의 경우, 감독 상위 50%에 드는 이연희 감독, 배우 상위 20%의 권상우, 상위 30%의 성동일이 주연을 맡고, 제작자 상위 30%의 정성훈이 제작을 맡았다. 이들 인력을 고려한다면, 영화 흥행은 상위 30% 구간(즉 140만여 명-210만여 명) 이상이 기대된다. 이 영화는 이전의 <탐정: 더 비기닝>(2015)을 통해서 2백62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한 지명도를 이용한 속편으로 3백15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여 손익분기점 180만 관객을 넘어섰다[12].

앞서의 흥행실패사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흥행 안전장치 대부분이 사용되었지만, 흥행에 실패한 것이다. 감독과 제작자, 배우 등이 작품선택의 기준이 되는 시나리오 즉 대본에 대한 상업적 성과 예측 분석은 직접 시행되지 못하고, 이러한 흥행 10분위 분석에서 감독, 제작자, 배우 등의 경륜과 안목에 의해서 간접적으로만 평가할 수 있다. 더욱 본질적인 대본에 대한 평가, 경험의 과학화가 핵심적인 과제지만 이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10분위 연구와 연장 선상에서는 앞으로 시계열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1] 한국영화재단 소득구간 산정절차, <http://www.kosaf.go.kr/>

